

현대건축의 은유적 색채체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taphorical Color System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Author 이영수 Lee, Young-Soo / 정회원,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공학박사
김선영 Kim, Sun-Young / 정회원,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수료

Abstract Rapid social changes and scientific advances of the 21st century have brought on a major paradigm shift towards consilience, making boundaries more or less irrelevant.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this is manifested in the emergence of colors that can be described as 'being aleatory', 'non-formal', 'non-deterministic' and 'perpetually evolving'. Contemporary architectural colors are not definitively fixed. They are rather liquid and metaphorical. Whereas the more traditional architectural colors have delivered clearly and precisely the intended symbolic meaning and visual information, those of today are less definitive and embody a more liquid and conceptual value system. This paper discusses the denoted signification and the meaning effect of the metaphorical color system found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This paper analyzes works of architecture from the late 20th century, when dramatic change in architectural color system surfaced, to the more contemporary creations. Here, three categories of color are suggested, namely material color, spatial color and liquid color. Each categories considered in connection with deconstruction, holistic interactivity and the multiplicity of meanings that may result as information from the external world is perceived as stimulus to the inner mind. Contemporary architectural color scheme is characterized by its unpredictable vagueness of meaning, synesthetic engagement of imagination and chance, and expansion of the inner and outer world, all of which contribute to a metaphorical effect. The metaphorical color system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dimensions, and it connects with human consciousness and amplifies itself through flexible and fluid communication. In this process non-physical colors materially serve as formal logic and room for varied interpretation of architectural space and our conceptual framework.

Keywords 비(非)물성 색채, 은유적 건축색채체계
Non-Physical Color, Metaphorical Architecture Color System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급변하는 사회현상과 과학기술의 발달은 계층 간의 위계 및 경계가 무의미해지는 21세기 패러다임의 변화로, '우연성', '비(非)형태', '비(非)결정', '되어가는' 등의 비(非)물성의 유동적인 은유(隱喩, Metaphor)의 건축색채를 대두(擡頭)시켰다. 과거의 건축색채가 분명하고 정확한 상징적 의미와 시각적 정보를 전달하였다면, 현대의 건축색채는 보다 덜 단정적이고 입체적인 사유의 가치체계를 추구한다. '색은 우리의 두뇌와 우주가 만나는 장소이다' 라고 폴 세잔이 말했듯, 건축색채는 인간의 의식구조와

연결된 이미지로서 우리의 삶과 사유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현대건축의 은유적 색채체계는 마치 주체와 객체가 전이(轉移)되고, 안과 밖이 혼재되어 빛과 물질이 엉키어 흐르는 강물과 같다. 수면(水面) 아래의 내재된 잠재성과 그 위에서 포착되는 실재성은, 수면의 접하는 면(Interface)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입체적 상호작용의 색채구조를 형성한다. 이 다양한 담론은 추상의 공간을 구성하는 시각 정보의 실제적인 축을 뛰어 넘어, 건축공간과 색채기능의 은유적 의미를 해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채색된 표면과 공간의 빛 에너지에만 건축색채를 국한시키지 않는 동시에, 폴 비릴리오의 지적처럼 질량과 에너지¹⁾, 그리고 새로운 총체

* 이 논문은 2007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1) Paul Virilio, Architecture in the age of its disappearance,

적 담론으로서 현대건축의 은유적 색채의 표현의미와 그 의미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처럼 유사성과 상이성의 의미론적 전의를 통하여 비결정의 해체색채, 유동적 관계색채, 다의적 사유색채로 건축색채를 유형화하여 비물성으로 존재하는 현대건축의 은유적 색채체계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건축 공간에서 고정되지 않은 의미가 서로의 고리를 물고 미끄러져 새로운 차원을 형성하는 은유적 색채체계를 탐구하였다. 색²⁾ 자체의 통계적 개념이나 정량적이고 분석적 측면, 색채³⁾의 마티에르(Matière)적 속성, 그리고 공간의 색채배색과 색채이미지 등의 시각적, 감성적 연구가 아닌 은유적 색채를 논리화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축색채의 구조를 이루는 재질의 색채, 공간의 색채, 비물성의 색채 유형을 분석하여 현대건축색채의 특성인 해체성, 상호 작용, 다의성을 바탕으로 현대건축물에 사용되는 비결정의 해체색채, 유동적 관계색채, 다의적 사유색채 등의 은유적 색채체계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범위는 건축물에서 색채 사용체계의 변화가 급격하게 드러났던 20세기 후반의 건축 작품에서부터 최근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새로운 재료와 대담한 색채를 사용하는 건축가 월 알슘, 재료의 본성을 중시하는 프랭크 게리, 빛과 공간의 현상학적 연출을 선호하는 스티븐 홀 등 건축에서 색채를 은유적으로 구축하는 건축가의 작품을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 건축물은 잡지나 작품집 등 출판물의 문헌적 자료를 바탕으로 수집하였으며, 2001년 로체스터에서 개최된 국제색채학회(AIC)의 연구발표 및 2008년 볼티모어에서 발표된 미국 색채학회(ISCC)의 심포지엄을 참고하였다.

The Virtual Dimension,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8, p.180

2) 색(Farbe)의 어휘는 고대의 고급 독일어 파라바(Farawa)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말은 본래 한 사물이나 존재의 매우 일반적인 성질과 외형을 가리키는 것이다.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사물의 밝고 어두움이나 빨강, 파랑, 노랑 등의 물리적 현상의 색(色, Color) 개념이 아닌 어떤 공간이나 사물이 지닌 전반적인 성격과 판단의 이해를 의미한다. 색채를 물체에서 분리한 서양적 사고의 이분법적 색채체계는 이러한 개념을 유추하기에 적절하지 않았으며 물체 본질에서의 형, 형태, 재료 등을 분리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마가레테 브룬스, 여덟 가지 색으로 풀어본 색의 수수께끼, 조정옥 역, 세종연구원, 2000, p.12 요약

3) 색과 색채의 차이-‘색’은 시지각 대상으로서 물리적 대상인 빛과 그 빛의 지각 현상을 일컫는다. ‘색채’는 물리적 현상으로서의 색이 감각기관인 눈을 통하여 지각되었거나, 그러한 지각 현상과 같은 경험 효과를 일컫는다. 색이 물리적 현상에 관한 일차적 자극의 직접적 차원이라면, 색채는 물리적 현상으로서 물체, 공간, 표면의 특성이 아닌 눈이 인식하고 보자 해석하는 빛의 어떤 특질에 근거한 감각이다. 이선민, 현대건축의 색채사고체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건축과 박는, 2006. 6, p.12

2. 현대건축색채의 해석

2.1. 색채 표현의 시대적 흐름

인류의 역사에서 고대의 건축색채는 종교와 천문, 기상, 도덕 등의 상징적, 주술적 표현으로서 사용되었으며,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전개된 색채의 다양한 철학적 논의는 토마스 아퀴나스⁴⁾에 의해 계승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색채를 적극적인 미적 표현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개인적인 해석 및 물리적 시각을 도입하게 된다. 특히 칸트는 색채를 형태에 비하여 열등한 것으로 폄하하여 색채에 의존하는 예술은 진정한 미를 갖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다.⁵⁾ 이러한 칸트의 견해를 극복하기 위해 괴테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심리적, 인지적 접근으로 색채를 연구하였다. 그의 뒤를 이어 히토르프(Johann, W. Hittorf)의 다채 장식(Polychromy)의 등장은 건축색채를 장식적 ‘표현’의 강력한 매개체로 인식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조형적 원리의 절충주의로서 장식적 ‘수단’으로 간주하는 한계가 있었다.

모더니즘 시대는 데 스틸(De Stijl)의 신 조형 운동으로 새로운 색채조형질서를 주장하였으며, 빛을 색채로 인식하는 러시아의 구성주의는 색채를 공간 구축의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바우하우스의 근대조형운동의 기본이념인 무(無)장식 요소는 재료 본연의 색채를 제외한 부가적인 색채표현을 자제하여 건축색채의 연구는 본격화하지 못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시대의 합리적, 논리적으로 제한된 색채와 달리 감성적, 주관적인 색채 표현을 사용한다. 건축 의미의 매개체로서 벽의 중요성이 복원되어 보다 회화적인 특성을 갖으며, 역사적 절충주의로서 파스텔 색채의 팔레트 특성이 부각된다. 건축색채의 물리적 표현만이 아닌 인간 의식구조와 연결된 새로운 인식체계로서 맥락적, 상징적 기호의 보다 풍부한 위상을 갖는다.

2.2. 현대건축색채의 특성

건축색채는 건축가의 상징적, 암시적 표현인 동시에 그 사회문화의 가치체계를 표출하는 복합적인 원리로 존재한다. ‘건축에서 빈 공간은 무채색이며 부피는 색채로서 작용한다’⁶⁾는 몬드리안의 말처럼 건축색채는 형, 형태등과 같이 조형적 표현의 수단인 동시에, 비고정적이

4) 토마스 아퀴나스는 미의 조건을 완전성(Perfectio), 그리고 비례와 조화(Proportio, Consonantia), 화려한 색채(Claritas) 등의 중세의 미의식으로 정리하였다. 井上充夫, 건축미론, 임영배·신태양 역, 국제, 2000.

5) 임마누엘 칸트, 판단력 비판, 책세상, 김상현 역, 2005.

6) Piet Mondrian, The Plastic Means, 1927. Jaffe, Hans, De Stijl, Thames and Hudson, 1970.

고 현상학적인 빛의 특징을 통하여 상호침투, 양면성, 동시성 등의 다른 구성 요소로는 유추할 수 없는 해체성의 담론을 갖는다.

물질계에 색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질은 무색이며, 에너지 또한 무색이다. 건축 공간에 부딪히는 빛의 모든 구성 요소를 '흡수' 하고 적외선만을 '반사' 시킬 때 우리는 공간이나 물체가 빨간색을 띤다고 말한다.⁷⁾ 메를르-퐁티는 '색채는 주위와의 관계에 의해 변화하기 쉬운 가시성의 응결'⁸⁾이라고 말했다. 즉 다양한 이질적 과정의 광선으로 이루어진 건축색채는 그 자체의 가시적 진리나 상징적 의미의 절대적인 추출보다는, 총체적 과정의 상호 작용으로서 이해한다.

건축색채는 형태나 구조보다 얽힘(獵獵)하고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여 특정한 하나의 의도만을 담지 않고 번역되는 특성이 있다. 예컨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색채를 이미지로 담을 경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표현이 가능하며, 바라보는 시각은 흔들리는 나뭇잎의 본질 색채에 주목하기 보다는 오히려 주변의 날씨와 배경, 혹은 추상적인 의미와 경험 등에 보다 깊이 관여하게 된다. 이처럼 건축색채는 외부세계의 맥락적인 정보관계를 내면세계의 자극으로 인식하는 다의성을 갖는다.

<표 1> 건축색채 표현의 시대적 변화

근대 이전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현대
건축물의 부산물로서 색채	부차적 요소에서 표현적 색채로 진화	재현적 상징주의로 풍부한 색채사용	탈 개념화에 의한 비 물성의 색채
상징성, 주술성	과도기적 변화	장식성 의미 부활	해체성, 상호작용, 다의성

2.3. 현대건축색채의 구조

(1) 건축색채의 의미

색채는 환경을 말하는 언어이고, 외부세계의 자극과 체험 및 내면세계의 반응과 의식의 상호작용으로 기호화하는 인지과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림 1> 색의 인지과정의 구조⁹⁾

공간속의 건축색채는 객관적인 이미지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색채구조를 입체적으로 재조직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건축색채의 논리는 단편적인 이미지로서 서술되는 것이 아닌, 어떤 자극의 대상으로 전이되거나 혹은 다양한 해석의 위치와 형식적

논리로 규명된다. 따라서 건축색채는 공간과 인간 사유와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해석되어 다채로운 교환과정의 구조를 갖는다.



<그림 2> 건축색채의 의미 구조

(2) 건축색채의 분류

최초로 색을 현상학적 특징으로 연구한 독일의 심리학자 카츠(David Katz)는 면색, 표면색, 공간색, 발광색 등으로 색을 분류하였다.¹⁰⁾ 그러나 빛과 물성이 혼재될 시, 공간의 건축색채 해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면색과 표면색은 건축색채의 인터페이스적인 '재질의 색채'로 해석하고, 색의 존재감을 내/외부에서 느끼는 공간색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중성화된 '공간의 색채'로 설명한다. 발광(發光)을 통해서만 보이는 발광색은 가시적, 비가시적 색채로서 입체적 사고를 생성하는 비물성의 색채로 설명하고자 한다.

<표 2> 건축색채의 분류

카츠의 색채분류	건축색채의 분류
면색 + 표면색	① 재질의 색채
공간색	② 공간의 색채
발광색	③ 비(非)물성의 색채

1) 재질의 색채

가장 일차원적인 건축색채로서 질감, 스케일, 형태, 공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건축의 재질색채는 첫째; 재질감을 포함하는 재료 고유의 색이나 도료의 사용처럼 표피에 직접 채색되는 색을 의미한다. 둘째; 유리 재질의 속성처럼 서로 다른 층위의 시간의 부피와 공간의 깊이를 포함하는 투과/반투명의 색채가 있다. 셋째; 반짝이는 도료나 매끈한 금속 재질의 사용으로 하나의 면(Interface)에서 다른 세계의 면으로 소통되는 반사 색채로서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하며 비고정, 비결정의 특성을 갖는다.

10) 면색은 원초적인 색으로서 맑고 파란 하늘처럼 순수한 색만 존재하는 느낌으로 실체감, 구조, 음영이 아닌 모호한 깊이로 보이는 색이다. 표면색은 명확한 거리에 위치하여 반사 물체 표면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어 지각되는 현상으로 불투명감, 재질감 등이 있다. 공간색은 투명한 착색액이 투명 유리에 들어 있는 것을 볼 때처럼 어느 용적을 차지하는 투명체 색의 현상으로 색의 존재감은 그 내부에서도 느낀다. 광원색(카츠는 광원색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은 전구나 불꽃처럼 발광을 통하여 보이는 색으로서 반드시 표면색에 나타나는 색은 아니다. 예를 들면, TV는 형광 소자에 의한 발광색을 표면색으로 나타내고, 갈색종이도 암실 내에서 빛을 비추면 면색의 주황색으로 보인다. 즉 색의 현상 방법의 분류는 대상이 발광하는 것과 직접적 관계는 없다. 문은배, 색채의 이해와 활용, 안그래픽스, 2005, pp.30-32 요약

7) 길라 발라스, 현대미술과 색채, 한택수 역, 궁리, 2002, p.33

8) Maurice Merleau-Ponty, Phenomenologie de la perception, Gallimard, 1976.

9) 프랭크 H.만케, 색채 환경 그리고 인간의 반응, 최승희 역, 국제, 1998.




2) 공간의 색채

건축에서의 공간색채는 자연채광과 인공조명이 공간에 비추지고 뿌려지는 물리적인 빛의 자극을 기록하는 도구인 동시에, 건축 공간 내/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색채의 선택적 관계의 과정을 총칭한다. ‘색이 공간 내에 존재함으로 항상 비틀어진다.’¹¹⁾는 의미는 점성의 시간과 유동의 공간¹²⁾에서 왜곡되고 뒤틀려, 탈구축적 시간과 비중력의 공간의 중성화된 색채로서 다양한 관계 해석이 가능하다.

3) 비(非)물성의 색채

색은 언제나 우리를 즐겁게 한다. 고딕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빛은, 강렬한 색채로 바뀌어 어두운 성당 내부를 비춤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한다. 외적 공간의 실제 색채와 내적 무의식의 잠재 색채가 만나 새로운 입체적 색채를 구현한다. 이 비물성의 색채는 가시적인 색채만을 지각하는 것이 아닌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화하여, 존재하지 않는 의미¹³⁾의 다양한 사고를 구조화한다.

<표 3> 건축색채의 구조

① 재료의 색채	② 공간의 색채	③ 비물성의 색채
		
불투명, 투과/반투명, 반사 인터페이스의 색채표현	탈구축, 비중력 중성화의 색채표현	가시적, 비가시적 입체적 색채표현

3. 은유적 건축색채의 의미

3.1. 은유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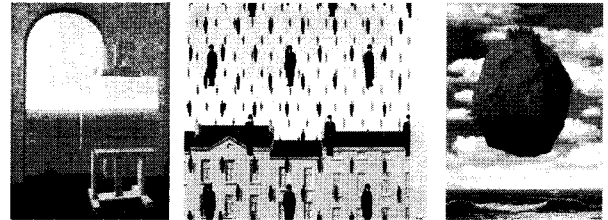
(1) 은유의 특성

은유¹⁴⁾는 어떤 비유법보다도 뚜렷하고 체계적인 ‘의

미의 전이’가 이루어지며,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개념영역과 의미영역이 동일 계열에 위치하여 동시 비교가 가능한 특성이 있다. 즉, 은유는 유사성(類似性)과 상이성(相異性)을 동시에 사용한다.¹⁵⁾ 모든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이해할 수 있다면 은유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부족함을 채우거나 논리가 멈추는 바로 그 지점에서 풍부한 의미의 전달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직유가 일의적인데 비하여 은유는 암시적 의미가 강하여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2) 은유적 사유의 효과

인간 사고체계의 심층적, 암시적인 표현은 구성요소의 해체 및 통합, 탈구축 등의 흐름 속에서 보다 생생한 이미지를 유추한다. 은유는 창조적인 의미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가시적/비가시적 요소의 탈구축적 관계에서 가시적인 부재의 침묵을 뚫고, 새로운 ‘의미효과’¹⁶⁾를 낳는다. 이 의미효과는 절연된 사고체계의 세계에 다리를 놓음으로써 상상력을 전이시켜 풍부한 새로운 소통을 창조한다.



확장된 상상력의 새로운 소통, Rene Magritte

<그림 3> The Human Condition

<그림 4> Golconda

<그림 5> The castle in the pyrenees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마그리트의 회화는 언캐니¹⁷⁾의 방법으로 상상력을 자극하고 흥미를 유발시켜 신비로운 담론을 유추한다. 그의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은 심오한 실험으로 부쳐지고, 무엇인가를 재현한 화면은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투명성으로, 혹은 유리창 너머의 외부 풍경을 고스란히 전달하여 안과 밖을 가르는 미묘한 연결을 담고 있다. 예컨대 ‘달혀 있는’ 상자 속은 ‘열려 있는’ 상자 속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으며, 그 사실을 확인하려는 순간 의미는 사라진다.¹⁸⁾ 또한 절대적이고 육중한 불투명의 가시적인 의미는 풍요롭고 숭고한 상상력¹⁹⁾이 존재하는 비가시적인 의미를 뛰어넘지 못한다. 표현할

11) Walter B.S, Benjamin, A Child's View of Color : Selected Writings, Vol.1, Trans, R. Livingstone, Cambridge, MA, 1996, p.48

12) 상대적 관계 속에서 비위계의 흐름을 갖는 중성적 차원의 공간, 김민혜·김문덕, 현대 디지털 전시공간에 나타난 뉴미디어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제9권 3호, 2007.11, p.46

13) 의미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의 모순적인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그 자신이 보이지 않는 것의 뼈대를 지니고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의 은밀한 보완적인 상대로서 보이는 것의 내면에서만 나타난다. 즉 보이는 것의 선상에 있는 잠재적인 초점이며 그 내면에 투명하게 새겨져 있다. 메를로 폰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남수인·최의영 역, 동문사, 2004, p.312

14) ‘Metaphor’의 어원의 뿌리는 ‘메타페레인(Metapherein)’이라는 그리스어 동사와 만나게 된다. 메타(Meta)는 ‘너머(Over)’, ‘위로(Beyond)’, ‘초월(Transcendence)’이라는 뜻이고 ‘페레인(Phor)’은 ‘전이(Transfer)’, ‘옮기다(Move)’, ‘나르다(Carry)’의 합성어로 ‘의미론적 전이’라는 뜻이다. 은유는 수사법상 비유법의 한 가지이며, 원 관념은 숨기고 보조 관념만 드러내어 대상을 설명하거나 그 특질을 묘사하는 표현방법이다.

15) John Fiske, An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Studi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2nd edn, 1990, 비주얼 컬처, 임산 역, 루비박스, 2005, p.174

16) Jacques Lacan, Ecrits, Editions du Seuil, Paris, c1966. p.515 요약

17) ‘언캐니(Uncanny)’는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개념으로 ‘억압에 의해 낯설게 된 익숙한 현상이 이미지나 오브제, 사건이나 사람들 등을 통해 회귀하는 현상’을 뜻한다.

18) 가스통 바슐라르, 공간의 시학, 광광수 역, 동문사, 2003, p.189

19) 메를로 폰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남수인·최의영 역, 동문사, 2004, p.59

수 없고, 보이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은유적인 사유는 가시적/비가시적 관계 속에서, 조각조각 흩어진 인간 내면에 무한히 잠재된 예측 불가능한 효과를 구축한다.

3.2. 은유적 건축색채의 구조

(1) 은유적 건축색채의 특성

은유적 건축색채는 재질의 색채, 공간의 색채, 비물성의 색채가 현대건축색채의 해체성, 관계성, 다의성 등과의 입체적인 의미론적 전이를 통하여 재해석되는 특성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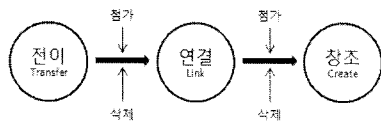
‘비결정의 해체색채’는 재질의 건축색채와 해체성의 새로운 의미론적 전이를 통해 예측 불가능한 모호성을 갖으며, ‘유동적 관계색채’는 공간의 건축색채와 관계성의 새로운 관계의 전이로서 상상과 우연의 공감각(共感覺)화로 이해된다. ‘다의적 사유색채’는 비물성의 건축색채와 다의성의 새로운 소통의 전이로서 내/외부세계의 확장성의 의미효과를 지닌다. 이처럼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대 공간의 은유적 건축색채는 빛과 물질이 혼재된 건축담론에 널리 퍼져 다양한 영향력을 갖는다.

<표 4> 은유적 건축색채의 특성

은유적 건축색채	의미론적 전이	은유적 건축색채 효과
① 비결정의 해체색채	↔ 해체성 + 새로운 의미	예측 불가능한 모호성
② 유동적 관계색채	↔ 상호 작용 + 새로운 관계	상상과 우연의 공감각화
③ 다의적 사유색채	↔ 다의성 + 새로운 소통	내/외부세계의 확장성

(2) 은유적 건축색채의 구축과정

은유적 건축색채의 구축 과정은 색채 이미지들 간의 총체적인 연결을 잠시 중단시키고, 감성적 느낌(Senti Comme Senti)이 아닌 다의적 사유로서 진행된다. 이는 잠재된 유사성에 근거하는 새로운 의미론적 전이를 추구하므로, ‘낯설게 하기(tranget)’와 ‘거리두기(Distanciation)’²⁰⁾에 관련이 깊다.



<그림 6> 은유적 건축색채의 구축과정

<그림 6>은 혼재된 하나의 색채영역에서 다른 색채 영역으로 ①의미의 전이(Transfer), ②기억과 연결(Link), ③새로운 의미 창조(Create)의 반복적인 세 단계의 선택적 과정의 재구성을 보여주며, 비결정의 해체색채, 유동적 관계색채, 다의적 사유색채는 이러한 구축

20) 서명수, 영화에서의 은유와 환유, 언어와 기호, 한국기호학회 엮음, 문학과 지성사, 1999, pp.222-223 요약

<표 5> 은유적 건축색채의 구조체계

분류	① 비결정의 해체색채 : 1차원의 은유색채	② 유동적 관계색채 : 2차원의 은유색채	③ 다의적 사유색채 : 무차원의 은유색채
표현의 의미 구조	재질의 색채 인터페이스의 색채표현 + 해체성	공간의 색채 중성화의 색채표현 + 상호 작용	비(非)물성의 색채 입체적 색채표현 + 다의성
의미 전의	↓ 새로운 의미	↓ 새로운 관계	↓ 새로운 소통
의미 효과	↓ ①예측 불가능한 모호성 (a) 다차원적 작용 (b) 비고정적 자리이동	↓ ②상상과 우연의 공감각화 (a) 다층적 상호관계 (b) 인간 무의식에 영향	↓ ③내/외부세계의 확장성 (a) 비가시적 심상 (b) 기호와 의미 연결

과정을 통하여 은유적 건축색채의 표현의미와 의미효과의 구조를 갖는다.

(3) 은유적 건축색채의 표현의미와 의미효과

1) 비결정의 해체색채

비결정의 해체색채는 건축표피와 공간에 색채가 진입하는 작용으로 여러 개의 색채의 공존을 말한다. 우리는 하나의 공간색채가 다른 공간이나 색채로 가리어져 볼 수 없다고 하여 그 뒤편의 색채가 절단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투과/반사되는 여러 겹의 건축색채의 지각에서 맨 앞의 색채, 두 번째의 색채, 세 번째의 색채 등으로 나누어 구분하지도 않는다. 이처럼 단편적인 색채경계의 면(Field)이 아닌 다차원적²¹⁾ 상호작용(Interaction)의 부재가 건축색채와 조우하거나, 여러 겹의 시간이 이행중이거나, 혹은 수많은 연속의 사건처럼 여러 경우의 수를 일컫는다. 라캉이 ‘은유란 비의미 속에서 의미가 생산되는 바로 그 지점에 위치한다.’²²⁾고 했듯이, 건축색채의 해체적 특성인 ‘되어가는’의 지점은 은유적 건축색채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차원이다.



<그림 7> 비결정의 해체색채
Itay Ohaly, Fracture-acrylic sheet

<그림 7>은 이스라엘 디자이너 이타이 오할리의 ‘Fracture Series’의 의자 디자인으로서 아크릴, 너도밤나무, 합판, 보드지, 콘크리트 등 저채도의 재료의 부서지거나 찢

21) 어떤 중심의 부재는 테리다의 식으로 보면 결정되거나 고정된 의미가 없다는 것과 상통하므로, 비고정의 반복적인 이동은 다차원을 증가시킨다. Derrida, Jacques, 목소리와 현상, 김상록 역, 인간사랑, 2006, p.140

22) 마단 사립, 후기구조주의와 포스터모더니즘, 전영백 역, 조형교육, 2005, p.10

어진 물성과 공간과의 상호관계를 연구하였다. 단순한 투과/반투명 등의 재질색채의 지각은 물리적 공간의 범위를 넘어서며, 이렇게 형성된 은유적 건축색채의 골격은 공간의 일부이며, 전체이고, 일부도 전체도 아닌 예측 불가능한 모호성으로 분열되어 세계를 아우르는 속성을 갖는다. 따라서 새로운 의미의 침투, 융합의 분열, 해체된 일부로서 자연스럽게 구체화된다.

2) 유동적 관계색채

공간에서 색채를 본다든 것은 그 색채의 주변 환경²³⁾과의 관계를 함께 본다든 의미이며, 절대적인 척도를 갖지 않는 리만(Riemann)공간처럼 척도 자체가 복잡적이다. 시작과 끝, 안과 밖이 모호하게 혼재하는 클라인의 병(Klein Bottle)처럼 ‘둘러싸는 공간’과 ‘둘러싸이는 공간’²⁴⁾의 건축색채는 다층적 상호관계의 대응으로서 존재한다. 따라서 건축색채의 지각은 공간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단순한 시각적 측면에서 벗어나 상상²⁵⁾과 우연 등의 공감각적인 전이와 확장으로 인간의 무의식에 은폐, 내재되는 새로운 관계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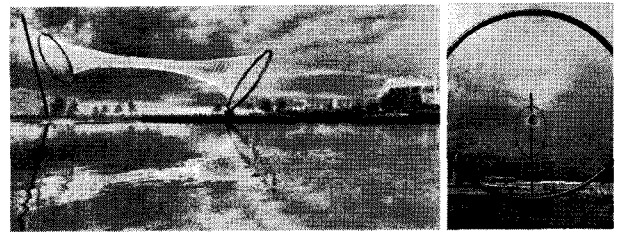


<그림 8> 유동적 관계색채
Bruce Munro, Field of Light of Eden Project, Cornwall, England

<그림 8>은 조명 디자이너 브루스 먼로의 에덴프로젝트로서, 6,000개의 아크릴 캡을 씌운 맑고 투명한 광섬유의 케이블 튜브 위에 다양한 색채의 LED 조명을 구면 내부에 설치하여, 폭풍이 지난 후 사막에 꽃이 피는 이미지를 형성화 시킨다. ‘빛의 들판(Field of Light)’은 지구의 다채로운 풍경과 야생 식물 등을 빛 색채를 이용하여 60mX20m의 공간에 연출한다. 주변의 황량한 불모지의 거칠고 채도가 낮은 자연 색채와 선명한 조명 색채의 대조는 바람과 빛, 시간, 계절에 따른 변성적인 환경 속에서 절대적이지 않은 관계색채의 의미로서 통제되지 않아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지 않는 자리 이동이 가능하다.

3) 다의적 사유색채

건축색채는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표현되지만 이미 펼쳐진 공간은 건축가의 의도로부터 자유로우며, 그 뜻이 넘쳐 다양하고 유연한 해석을 불러일으킨다. 물질적, 객관적 기호로서 건축색채는 구체적 감각을 재현하는 재질색채와 공간색채의 실재성인 반면, 재현된 색채에서 새로운 의미를 연상하거나 유추하는 개념적이며 추상적인 사유의 건축색채는 비물성의 색채로서 존재하지 않는 심상의 의미²⁶⁾이다. 그러므로 비가시적 사유색채를 해석하는 것은 절대적일 수 없으며, 그 의미는 상황과 해석에 따라 변화하는 건축담론의 역할을 한다.



<그림 9> 다의적 사유색채
Anish Kapoor, Tees Valley Giants, England

<그림 9>는 아니시 카푸의 설치조형물 티스 벨리 자이언트로서 분주한 일상 도시에 언캐니를 던져 새로운 담론을 구체화한다. 기울어진 기둥과 2개의 커대한 링에 연결된 거대한 망의 구조물은 길이 110m, 높이 50m의 크기로 설치될 예정이며, 익숙한 도시 풍경에 스케일을 가늠할 수 없는 신선한 충격을 주어 ‘처음’이 아닌 ‘처음으로 겪었던 순간’을 떠오르게 한다.²⁷⁾ 촘촘히 뿔려있는 망 사이로 기후와 습도, 바람 등의 유동적인 변화로 비(非)물성의 색채가 영키고 뒤틀려 구분할 수 없다.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총체적 차원의 해체와 통합은 실재의 세계로부터 벗어나²⁸⁾, 새로운 잠재성으로 진입하는 플라톤(Plato)의 미메시스(Mimesis)²⁹⁾와 동양의 물아일체(物我一體)와 관련된다. 폭발적으로 전개되는 상상의 색채 이미지는 내/외부의 확장된 세계에 녹아들어, 과거와 미래의 양방향으로 동시에 진행되어 현재의 순간을 무한히 분할한다.³⁰⁾ 보이는 현재보다 보이지 않는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상상 속에 은폐된 세계와 소통하므로, 은유적 색채는 ‘볼 수 있는’ 실재의 색채나 ‘볼 수 없는’ 추상적인 색채가 아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상과 우연의 방법으로 살아 움직이는 은유의 색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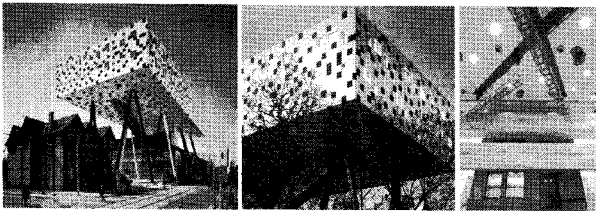
23) 루돌프 아른하임, 시각적 사고, 김정오 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p.84
24) Schoarsow, August Kompositionsgesetze in der Kunst des Mittelalters, 2ter Bd: Gotischer Kirchenbau und Aussenarchitektur des romanischen und gotischen Stils, Schroeder, 1920.
25) 내면세계의 대부분은 외면세계에서 오며 상상은 지각에 근거한다. 인간은 본 적이 없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며 상상은 지각된 것의 변형으로 지각을 통해 형성된 이미지를 변형시키며 ‘이미지 작용’이라고 한다. 철학아카데미(이정우), 철학 예술을 읽다, 도서출판 동녘, 2006, p.86

26) EL. Croquis 80, A Conversation between the Lines with Daniel Libskin, 1996, p.13, Jean Baudrillard & Jean Nouvel, Les Objets Singuliers, Architecture et Philosophie, Les Editions Calmann-Lévy, 2000, p.19
27) 할 포스터, 욕망 죽을 그리고 아름다움, 전영백 역, 아트북스, 2007, p.114
28) K. Harris, 현대미술 그 철학적 의미, 오병남 외 역, 서광사, 2004, p.85
29) Hermann Koller, Die Mimesis in der Antike : Nachahmung, Darstellung, Ausdruck (Bern, 1954) pp.15-18 요약
30) Gilles Deleuze, Logique du Sens, Paris: Minuit, 1969, p.9, p.192

4. 현대건축의 은유적 색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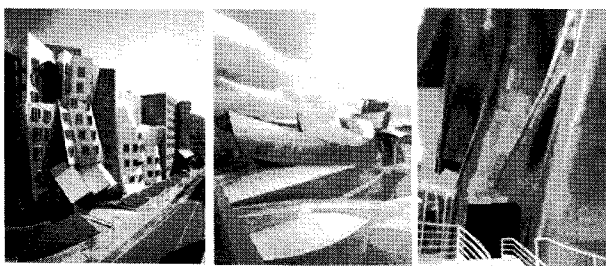
4.1. 현대건축의 비결정의 해체색채

현대건축의 비결정의 해체색채는 건축세계에 색채가 진입하는 1차원적 은유색채의 작용으로서 건축물 본질색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장 누벨은 현대건축의 본질이 표면재료와 질감색채의 강도 높은 의미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건축색채는 서로 다른 건축물에 긴장색채를 유발시키는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 따라서 비결정의 해체색채는 빛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호한 비결정의 의미를 갖는다.



<그림 10> 현대건축의 비결정의 해체색채
Will Alsop, Sharp Center for Design of
OCAD (Ontario College of Art and Design), Toronto, Canada

<그림 10>은 유희적인 건축철학을 추종하는 영국의 건축가 윌 알숍의 건축물이다. 다이내믹하게 기울어진 가늘고 긴 조형적 기둥 형태에 시각성이 높은 교체도, 고평도의 흰색과 검정색의 패턴을 사용하여 새로운 색채구조를 해체, 통합한다. 12m 높이의 육중한 사각 볼륨에 불규칙한 색채 픽셀디자인은, 공간을 가르고 형태를 부유시키는 착시효과를 극대화한다. 또한 빅토르 바자렐리(Victor Vasarely) 2차원적 회화인 옵아트와 다채색을 활용한 혁신적이고 풍부한 색채표현은 공간 내/외부에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처럼 기하학적 형태의 정적인 구성이 아닌 위상기하학적으로 형성하는 착시의 뫼비우스의 띠처럼 서로의 고리를 물고 미끄러져 비결정의 해체색채의 특성을 띤다.



현대건축의 비결정의 해체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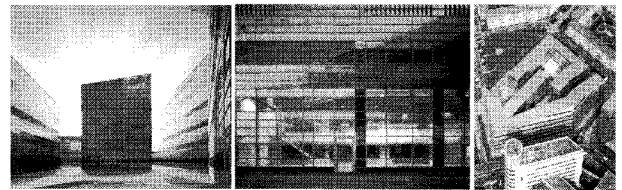
<그림 11> Frank O. Gehry, MIT State Center, Massachusetts
<그림 12> Frank O. Gehry, Guggenheim Bilbao Museum, Spain
<그림 13> Frank O. Gehry, Seattle Center, Washington

해체주의 건축가 프랭크 게리는 유연성과 영감 등을 이용하여 추상적이고 자유로운 형태와 서로 다른 이질적

인 재료의 혼합 표현을 선호한다. 공간의 다양한 해석을 위하여 브론즈, 스테인리스 스틸, 티타늄, 유리 등의 반짝이며 반사되는 유리색채와 금속색채를 즐겨 사용한다. 이 건축색채는 시작과 끝이 존재하지 않으며 안과 밖의 구분이 모호하여 주체와 객체의 구분 없이 다양한 증폭으로 비결정의 해체색채를 구축한다.

4.2. 현대건축의 유동적 관계색채

현대건축의 유동적 관계색채는 2차원적 은유색채로서 건축물 본질색채가 주체가 되어 연속적인 시, 공간에 조형적 물성요소와 비물성과의-건축자체의 변성색채나 건축조명에 의한 공간색채-상호작용을 한다. 색채는 건축표면에 드러나지만 그 건축공간에 정착하거나 중속되지 않으며³¹⁾ 끊임없이 흐르고 미끄러져 유동적인 관계색채로서 절대적인 색채에 중속되지 않는 시각적 감각을 초월한 공감각의 영역으로 수렴한다.



<그림 14> 현대건축의 유동적 관계색채
UN Studio, La Defense Office Complex, Almere, Netherlands

<그림 14>의 유엔 스튜디오의 라 데팡스는 건물 자체의 끊임없는 빛 반사로 어느 시간, 어떤 시점에서 건축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탄력적인 그라데이션(Gradation)을 형성한다. 건축물의 외관은 입사각에 따라 노란색에서 푸른색, 붉은색으로 변하다가 보라색에서 다시 녹색 등을 띄다가 사라지는데, 이렇게 아홉 개의 색채로 변화하는 금속제 외관에 빗살무늬의 색 그림자의 건축색채는 한눈에 읽히지 않는 특성을 지닌다. 건물 내/외부의 투명한 유리색채는 어두움과 밝음, 내부와 외부, 시작과 끝의 의미를 확대하여 재해석하는데, 이때 변화하는 주변 색채의 첨가와 삭제를 통해 변성의 색채, 유연한 색채, 다차원의 색채 등으로 시각의 의미를 공감각화 시킨다.



<그림 15> 현대건축의 유동적 관계색채
Nobuhiro Nakamura (A-Asterisk), Leafy Shade Shanghai,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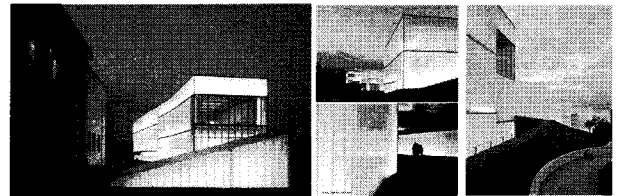
31) 루돌프 슈타이너, 색채의 본질, 양영관, 타카하시 이와오 역, 물병자리, 2005. pp.54, 63-64 요약

<그림 15>는 건축가 나카무라의 작품으로 상하이의 오래된 호텔을 사무실과 쇼핑몰 등으로 리모델링한 다목적 건축물이다. 벽과 천장의 구분이 모호한 비정형의 공간에 불규칙하게 파편화된 나뭇잎 패턴에서 쏟아지는 간접조명은 재질색채와 공간색채의 혼재된 양상을 보여준다. 숲 속의 나뭇잎 사이로 태양 빛이 절묘하게 뿌려지듯, 밤하늘의 일렁이는 별빛을 체험하듯, 건축조명은 유동적 관계색채를 확장한다. 매끄럽게 반사되는 원형기둥의 스테인리스 스틸의 색채(Cool Gray)와 둔탁하게 비춰지는 부드러운 콘플로어(Confloor) 바닥의 회색(Charcoal Gray)조는, 빛과 그림자의 강력한 시각적 인상과 동시에 아늑한 분위기의 혼재된 공감각을 극대화한다.

4.3. 현대건축의 다의적 사유색채

현대건축의 다의적 사유색채는 무차원³²⁾의 은유색채로서 건축색채와 건축외의 색채의 동등한 의미에서 출발하여 눈에 보이는 이미지들과 보이지 않는 이미지들 사이에 존재한다.³³⁾음악에서 ‘쉼표’가 선율을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할 수 없듯이, 공간에 표현되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비시각적 색채의 자극과 반응은 보다 확장된 건축담론의 체험과 인식의 역할을 한다. 진리는 스스로를 숨길 때 가장 진실하게 나타나며, 참된 진리를 본다는 것은 바로 전체를 인식한다는 것이다.³⁴⁾ 그러므로 보이지 않지만 잠재되어 움직이는 다의적 사유색채는 현대건축을 구축하는 매우 중요한 틀인 동시에 건축기호와 의미를 연결하는 총체적 역할을 한다.



<그림 16> 현대건축의 다의적 사유색채
Steven Holl, Nelson-Atkins Museum of Art, Kansas City MO

<그림 16>의 넬슨 애킨스 미술 박물관은 건축색채와 주변색채의 동등한 융합으로 새로운 경험을 창조한다. 다섯 개의 유리렌즈는 마치 얼음 조각처럼 빛을 수렴, 확산, 굴절시켜 얽히고설킨 의미를 나타내며, ‘진전되고

<표 6> 현대건축의 은유적 색채체계 분석

은유적 색채 해석			은유색채의 표현의미와 의미효과의 구조체계						
건축사례									
건축작가			Will Alsop	Frank O. Gehry	UN Studio	A-Asterisk	Steven Holl	3Deluxe	
1차원 은유색채	현대건축의 비결정의 해체색채	의미 효과	예측 불가능한 모호성	착시, 즐거움	착시, 입체적	한 눈에 읽히지 않음	빛과 색채의 조응	입체적	고유색채
		표현 의미	재질색채 건축색채	고유색채	고유색채, 반사색채, 투과/반투명 색채	투과색채, 유연색채, 변성색채	고유색채, 반사색채	투과/반투명 색채	고유색채, 투과/반투명 색채
2차원 은유색채	현대건축의 유동적 관계색채	의미 효과	상상과 무연의 공감각화			시각의 공감각화	혼재된 공감각화	낮, 밤의 공감각화	비시각적 공감각화
		표현 의미	공간색채 건축색채: 주체 + 주변색채: 보조			주변색채, 조명색채, 다차원색채	조명색채	주변색채, 경험색채, 조명색채	주변색채, 경험색채, 조명색채, 상호색채
무차원 은유색채	현대건축의 다의적 사유색채	의미 효과	내/외부 세계의 확장성				잠재성, 내재성, 진행과정	여백, 창조, 상상력, 통찰력	
		표현 의미	비 물성의 색채 건축색채와 건축외 색채 동등한 의미에서 출발				추상색채, 내/외부 융합색채	내/외부 융합색채, 흰색의 빛, 초월색채, 심상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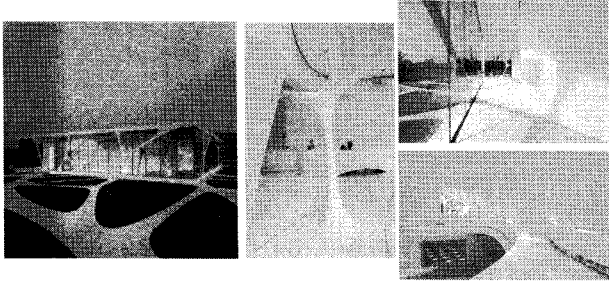
32) 무차원은 여러 겹의 세계로서 물리적인 차원으로 분리할 수 없는 추상화된 개념을 의미한다. 고전문화에서 사용되는 무량수전(無量壽殿)의 표현인 ‘무량’을 직역하면 ‘셀 수 없다’의 의미이며, 이에 반해 불교의 붓다(Buddha)가 비유하는 갠지스 강가의 모래알은 현대 기술적 맥락에서 말하자면 엄밀하게 그 모래알은 셀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매우 많은 것과 무한의 개념은 다르다. 이정우, 개념 뿌리들1, 산해, 2008, p.296

33) Jacques Herzog, Ideas of Design, José Luis Mateo in Conversation with Jacques Herzog’ in Xavier Guéll, Herzog & De Meuron, ed. Gustavo Gili, Barcelona, 1989, p.12

있는 과정의 ‘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어지는 이 빛 덩어리는 단순한 마티에르의 공간색채를 초월하여 다의적 사유색채에 수렴한다. 낮에는 유리 렌즈를 통하여 미술관 안으로 빛을 투사시켜 공간 속의 모든 색채에 의미를 부여하고, 밤에는 건축물 내부에서 외부로 은은하게 흐르는

34) K 해리스, 현대미술 그 철학적 의미, 오병남 외 역, 서광사, 2004, p.85

조명 빛으로 내재된 의미를 표현한다.



<그림 17> 현대건축의 다의적 사유색채
3Deluxe, Leonardo Glass Cube, Bad Driburg, Germany

<그림 17>의 레오나르도 글라스 큐브는 흰색을 빛으로 해석하여 건축색채를 비물성화 하는 특징을 보인다. 유리 파사드는 건물 내, 외부의 연결 및 초자연적의 세계로 이어지는 통로가 된다. 건축물과 주변경관을 바탕으로 존재하는 투명한 프린트색채는 보일 듯 말듯 한 시선으로 미끄러지듯 이동한다. 유채색은 물리적 공간을 전략적으로 구분하고 해체시키지만, 무채색은 모든 차원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여 형태와 볼륨 등을 정직하게 지각하며 특히, 건축 담론의 강화로서 단일 흰색을 사용한다. 시각적 형상을 강화시키는 개념으로 흰색을 사용하며, 생명력이 없는 무미건조한 무색이 아닌 날카로운 통찰력과 명백한 의미해석을 표현하여 다의적 사유를 구체화한다. 그러므로 이 건축물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은 흰색이며, 이 흰색은 시각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를 초월한 색채로서 비움으로도 해석한다. 이처럼 모든 색을 포함하거나 혹은 포함하지 않는 흰색은 긴 세월 길들여진 자연의 낮은 채도와 빛깔의 희미한 농도를 담아서, 분리되어 있으나 느슨한 상상력을 수반한다. 건축색채는 화려하고 강한 자극의 생경한 표정을 종종 나타내는 반면-자연에는 완전한 흰색과 완전한 검정색은 사실 존재하지 않으므로-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내재된 흰색의 사유색채의 의미는 보다 힘 있고 다채로운 창조의 멋을 보여준다. 이처럼 흰색 빛은, 동양화의 여백 같은 의미로 새로운 창작이 가능한 사유색채를 구체화시킨다.

5. 결론

현대건축의 은유적 색채를 유형화할 때 물성으로 존재하여 의미론적으로 전이되는 건축 색채에 관해서만 논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대건축의 은유적 색채체계는 추상적인 공간기호에, 겹겹이 층위가 다른 의미를 구체화하여 경험과 기억, 우연과 상상 등을 첨가, 삭제하는 필수불가결의 강력한 틀을 갖는다. 교차적으로 이어지고 순환되어 나타나는 모호한 색채와 조각조각 관통되어 불연속적으로 엮어져 혼재된 색채는, 외부세계와 내면세계

와의 총체적인 비물성의 색채로 확장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결정의 해체색채, 유동적 관계색채, 다의적 사유색채로 건축색채를 유형화하여 비물성으로 존재하는 현대건축의 은유적 색채체계의 담론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건축의 은유적 색채체계는 고정되지 않은 의미가 서로의 고리를 물고 미끄러져 다양하게 해석되는 비물성의 특성을 갖는다. 시작과 끝, 안과 밖, 과거와 미래 등의 무의미한 시공간의 패러다임 속에서 어느 시간과 어떤 시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현대건축의 은유적 색채는 다르게 형성되어 새롭게 읽힌다.

둘째, 현대건축의 은유적 색채체계는 정량적 개념이나 단편적 분석으로 조합할 수 없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비물성의 특성을 갖는다. 추상의 공간기호에 물리적으로 채워진 은유적 색채는, 시각 정보의 실제적인 축을 뛰어넘어 내재된 차원을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등 공감각적 색채를 구축한다.

셋째, 현대건축의 은유적 색채체계는 보이지 않지만 세계에 존재하여 유동적으로 사유하는 비물성의 특성이 있다. 광범위하게 확장된 시공간에서 유려(流麗)하게 녹아 흐르는 현대건축의 은유적 색채는 공간을 가르고 형태를 부유시키는 동시에, 단단하게 정지된 의미를 절단하여 사유의 확장을 극대화한다.

넷째, 현대건축의 은유적 색채체계는 창의적 소통이 증폭되는 비물성의 특성을 지닌다. 입체적인 현대건축의 은유적 색채는 인간의 사유체계와 연결되어 안과 밖,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며 새로운 비물성의 은유적 색채로 존재한다. 이러한 건축공간과 복합적인 사유체계를 움직이는 다양한 해석과 형식적 논리는 실제의 감각을 초월하거나, 시각적 의미를 넘어서는 총체적 건축 담론의 역할을 한다.

참고문헌

1. 가스통 바슐라르, 공간의 시학, 광광수 역, 동문사, 2003.
2. 길라 발라스, 현대미술과 색채, 한택수 역, 궁리, 2002.
3. 루돌프 슈타이너, 색채의 본질, 양역관, 타카하시 이와오 역, 물병자리, 2005.
4. 루돌프 아르하임, 시각적 사고, 김정오 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5. 마가레테 브룬스, 여덟 가지 색으로 풀어진 색의 수수께끼, 조정옥 역, 세종연구원, 2000
6. 메를로 폰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남수인·최의영 역, 동문사, 2004.
7. 문은배, 색채의 이해와 활용, 안그래픽스, 2005.
8. K. 해리스, 현대미술 그 철학적 의미, 오병남·최연희 역, 서광사, 2004.
9. 프랭크 H.만케, 색채 환경 그리고 인간의 반응, 최승희 역, 국제, 1998.
10. 할 포스터, 욕망 죽음 그리고 아름다움, 전영백 역, 아트북스, 2007.
11. Benjamin, Walter B.S, A Child's View of Color: Selected Writings, Vol.1, Trans, R. Livingstone, Cambridge, M.A, 1996.

12. Deleuze, Gilles, *Logique du Sens*, Paris: Minuit, 1969.
13. Hermann Koller, *Die Mimesis in der Antike: Nachahmung, Darstellung, Ausdruck* (Berm, 1954)
14. Jencks, Charles, *The architecture of the jumping universe*, New York : John Wiley & Sons, 1997.
15. Johnson, Mark, *Metaphors We Live B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16. Mondrian, Piet, *The Plastic Means*, 1927. Jaffe, Hans, *De Stijl*, Thames and Hudson, 1970
17. Merleau-Ponty, Maurice, *Phenomenologie de la perception*, Gallimard, 1976.
18. Virilio, Paul, *Architecture in the age of its disappearance, The Virtual Dimension*,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8.
19. 서명수, 영화에서의 은유와 환유, 언어와 기호, 한국기호학회 위임, 문학과 지성사, 1999.
20. 이선민, 현대건축의 색채사고체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건축과 박논, 2006. 6.
21. 최왕돈·양선아, 현대건축에 나타나는 색채의 다중적 의미, 한국 실내디자인학회 제15권 2호, 2006. 4.

[논문접수 : 2009. 05. 25]

[1차 심사 : 2009. 06. 21]

[게재확정 : 2009. 07. 03]